

판결문 잉크도 안말랐는데... 초고속 사면이라니

여야 정치권 ‘이명박 특사’ 비판 확산

최시중·천신일 등 최측근 사면

“직권 남용” “법치 파괴” 맹비난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특별 사면에 대해 비판이 확산하는 양상이 다.

특히 일부 인사의 경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데다가 형이 확정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상태의 ‘초고속 사면’이라는 점 등에서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은 1주일 뒤인 12월7일 확정됐다. 역시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천신일 전 세종나모여행 회장도 지난해 11월30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초 실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의 경우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초고속 특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정치적 판단에 치우쳐 사면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이번 특별사면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

치지 않은 대통령 핵심 측근을 특별 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 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 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체해야 하는 게 온당한 데도 대통령이 역풍만을 초래

할 무리수를 뒀다”고 부연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법치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측근은 권력의 특혜 하에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의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중 일어난 사회지도층 권력 부정부패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재임기간 중 특사는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는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난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사방관하며 특사를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인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측근사면 단행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남겼다”면서 “역사는 이 대통령을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자신과 측근들의 이익만을 쫓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의 측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횡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오른쪽),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피선거권 되찾은 서갑원·신정훈 정치활동 재개할까

지역정가 “조직 건재...정계복귀 가능성” 전망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에 선정된 전 나주시장과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포함되면서 이 두 정치인의 정치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신 전 시장은 나주시장 재직시절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서갑원 전 국회의원은 박원 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뒤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의 형이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들이 이번 특별 사면·복권을 계기로 피선거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시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신 전 시장은 지난 18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김두관 전 경남지사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광주·전남지역 조직을 다지는 등 사실상 정치권에서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곧바로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신 전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고향인 나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해온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주시장 선거 출마도 가능하지만, 나주·화순 선거구의 국회의원 도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갑원 전 의원의 정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역구였던 순천지역의 조직이 현역 시절보다는 못하지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기 순천·곡성 국회의원 선거 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 정치인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고향인 순천에서 서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운 감도는 ‘민주당 워크숍’

내달 1일 앞두고 대선 패배 책임론·경선 룰 놓고 계파간 격돌 가능성

다음달 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워크숍을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론과 전당대회 경선 룰 등을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비주류 측에서는 그동안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전열과 논리를 정비한 상황이며 주류 측과의 일전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이에 반해, 주류 측은 눈에 띄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네 번의 선거에서 연속해서 패배했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날 워크숍

에서는 이에 대한 치열한 난상토론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비대위 내에 지난 대선에서 쓰였던 자금을 검증하는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자금이 잘못 사용됐다는 각종 의혹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선 자금이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내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선대위를 장악했던 친노 및 주류 진영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주류와 비주류의 1차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2차 충돌은 전대준비위 구성과 함께 경선 룰을 둘러싸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워크숍에서 비주류 진영의 공세는 ‘찾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비주류 내부에 구심점이 없고 각 그룹별로 각개 약진하는 모습이어서 일관적인 문제 제기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비대위에서는 다음 달 워크숍에서 참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계파 청산 선언’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김영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치열한 난상토론을 통해 민주당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하지만 토론은 토론으로 끝나야 하며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의원들이 계파 종식 선언에 나서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내 논란 부른 ‘문희상 발언’

‘안철수, 대선패배 책임론’ ‘친노그룹, 당권 도전 불가론’ 주장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책임론’과 ‘친노 그룹, 당권 도전 불가론’을 주장, 논란을 낳고 있다.

문 위원장은 지난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대선 패배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라고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당내에서 제기되는 친노 책임론과 관련,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 친노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한 박자 쉬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 다”며 친노 그룹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문 위원장의 발언은 당내 외에 파장을 낳고 있다.

당장, 안 전 교수 측에서는 불편한 기색이다.

안 전 교수 측 관계자는 “자신의 책임보다는 남의 탓만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대선 패배의 원인”이라며 “뭐라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당내 친노 인사들도 문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적절치 않다”며 불쾌한 내색을 하고 있다.

친노 그룹으로 분류되는 모 의원은 “문 위원장의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대위원장이 할 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오병윤·김선동, 영산강 죽산보 방문

임내현, 첫 의정보고회

통합진보당 오병윤(광주 서구 을·사진 왼쪽) 원내대표와 김선동(순천·곡성) 의원은 30일



민주통합당 임내현(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은 29일부터 북구 임동을 시작으로, 19대 국회의원 당선 후 첫 번째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오전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죽산보를 방문해 농경지 침수 피해지역 농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보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두 의원은 이날 통합진보당 소속 전남도의원과 나주시의원, 광주 서구의원, 국토해양부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등과 동행해 주변 농경지 피해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 뒤 피해지역 농민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각 동별 자치센터를 돌며 지난해 의정활동 중 국정조사, 대표발의 법안 및 지역구 속원사업 해결 및 예산확보 등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광주와 북구의 속원사업이었던 동광주 IC~용봉IC~광산IC간 6차선 확장 예산 확보 등을 강조할 예정이며, 주민들과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야간)

- 모집전공 :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 광주반, 여수반, 남악반
- 원서 접수 기한
 - 특별전형(면접) : 2013. 1. 31(목) 18:00 까지
 - 일반전형(면접 및 필답고사) :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별 지원자격은 홈페이지 참조바람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무원, 경영인 등
- 원서접수 기한 :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3. 관리사과정

- 모집대상 :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접수 기한 :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 화 : (062)530-5196, FAX : (062)530-2266
- 홈페이지 : http://cnugpa.kr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리모델링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70,000,000원	4,600,000원
농협중앙회	15,000,000원	2,100,000원
씨티은행	10,000,000원	1,170,000원
상성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다불유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사례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리모델링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100,000,000원	6,750,000원
농협중앙회	40,000,000원	3,200,000원
국민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씨티은행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목도연빌딩 임대

※옥탑 광고 임대※

⇒ 2호 광장 5거리 코너, 6층 건물

⇒ 엘리베이터 2대

⇒ 건물상대 최상

⇒ 임대료/관리비 저렴

⇒ 문의 : H.010-3605-5000

- ▶ 면적 : 각층 110평, 전체/분할임대 가능
- ▶ 용도 :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금융기관, 사무실, 교회, 헬스장, 등등

